

한국지방신문협회, 민주 당권주자 김한길 인터뷰

“함께 뭉쳐 독한 혁신 이뤄야 ‘이기는 민주당’ 될것”

광주일보 등 전국 유력 9개 지역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는 23일 민주당 5·4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도전에 나선 김한길 후보와의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함께 뭉쳐서 독한 혁신을 이뤄야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당 대표 출마 배경은.

▲ 지난 총선과 대선 등 4번의 큰 선거에서 민주당은 패배했다. 당원과 국민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부응하지 못했다. 오히려 무책임한 모습으로 실망만 안겨줬다. 이런 모습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함께 뭉쳐서 독한 혁신을 이뤄야 한다. 이 과정에 역할을 하겠다.

▶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을 지적한다면.

▲ 계파 패권주의로 민주당이 하나 되지 못한 점이다. 특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힘을 합치지 못하고 무절러(?) 버린 것도 패배를 불렀다.

▶ 대선 평가위에서 대선 기여도가 낮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 벤치에 안착하고 뭉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당시 선대위에 계셨던 분들이 뛰지도

계파 정치로 대선 패배 대타평으로 계파 청산

안철수 신당 창당하면 새누리당만 좋아할 것

못한 사람에게 대선 패배에 책임 있다고 공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이다. ‘독한 혁신’의 구체적인 방안은.

▲ 혁신을 위해서는 민주당을 하나로 뭉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하나로 뭉친 후, 당원이 주인되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기존의 지지세력 위에 우호세력을 더해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리에 이뤄지면 ‘이기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

▶ 계파청산 대책이 있다면.

▲ 나는 계파가 없는 사람이다. 계파라는 모임에 나가 본 적이 없다. 계파 없는 당 대표가 있어야 계파 청산이 가능하다. 특히, 대타평으로 계파 청산을 이뤄나가겠다.

▶ 안철수 신당 창당론이 확산되고 있다.



▲ 안 전 교수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좋아할 세력은 새누리당 밖에 없다. 안 전 교수도 이를 잘 알 것이다. 안 전 교수를 지지하는 분의 상당수가 과거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하고 변화하면

다면 안 전 교수 지지층의 상당수가 다시 민주당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만약, 야권의 재구성이 이뤄진다면 그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어야 한다.

▶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은.

▲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공청회, 토론회는 물론 당원들과의 토론 과정을 거쳐 전당원투표제 등을 통해 총의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

▶ 감기정, 이용섭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 단일화는 명분이 좋아야 한다. DJP 연대와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협상이 그랬다. 그런데 지금의 단일화는 그동안 당권을 장악했던 당내 세력의 기득권 유지 차원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광주·전남지역 공약을 제시한다면.

▲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탐방 인사는 어디로 가고 호남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에서의 호남 소외를 막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 사업들을 철저히 챙기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순태 칼럼

뉴스는 생선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곧 썩는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생명력을 가진 뉴스는 발효가 되고 정치는 진화하기 때문이다. 두 주일 전 전인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지금 최대 이슈가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가 복합의 미사일 발사여부라고 했다.

이들 전 점심 때 만나 다시 묻자, 안철수와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거가 최대 관심사라고 했다. 한 달 이상 불고 있는 북풍이 안풍(安風)이며 별장 성상남, 윤진숙 장관 청문회 후일담, 박근혜 정부의 호남인사 소외 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을 한방에 날려버린 듯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북의 말 폭탄에 피로감이 겹치고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려는 낙관론과 함께, 바람이 날려가 버렸던 이슈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듯하다.

광주 사람들이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

양치르고 있다. 관심이 초점은 안철수가 신당을 창당하여 5년 후를 생각하면서 비전을 세우는 세력을 만들고, 학습을 통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안철수가 국회에 입성할 경우 정치 지각변동의 도화선이 될 것은 분명하다. 안철수 신당 시나리오 구체화와 함께 야권의 일부 세력이 신당 쪽으로 몰리면 야권이 분화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안철수가 민주당에 입당하여 민주당과 함께 정치쇄신을 이루어나갈 수도 있다. 신당창당과 입당은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가변성을 갖고 있다.

민주당 비주류가 당권을 잡고 안철수가 입당하여 공동대표를 맡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 경우 박원순과 정경구도를 이루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당 입당은 난제

다시 안철수를 생각하며

거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안철수의 정치적 과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좀 이상할지 모른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을 희망하는 호남사람들이 안철수를 열광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화 막바지에서 광주에 왔던 안철수에게 “죽어서서 개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은근히 문재인 쪽으로 단일화 해주기를 권유하여, 그에 대한 미안함과 뭔가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안철수는 광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난 후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하지 않았던가.

여권일각에서는 안철수 현상은 이제 ‘꺼져가는 불’이라거나,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하여 폭발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단하고 있는 것 같다. 새정치에 대한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안철수 바람은 소멸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안철수 현상이 다만 안개 같은 이미지만은 아니다.

바람은 언제고 부활이 가능하고 꺼져가는 불이 바람을 만나면 더 큰 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말이다. 안철수는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의 답을 주도록 하여 정치혐오와 정치무관심의 늪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희망으로 건져 올려주지 않았던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창당이 되지도 않은 안철수 당의 인기가 민주당을 훨씬

가 많다. 키워드는 지리멸렬해 있는 민주당이 얼마나 혁신을 이루느냐이다.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5년 후를 기약할 수 없다는 걸 호남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안철수가 바라는 민주당은 먼저 계파 갈등을 없애고, 종북 진보세력과 손을 끊고, 중도 쪽으로 우클릭 하는 등 이념적 스펙트럼의 수정이다. 그리고 3-4대 청년층 중심에서 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중을 키우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짧은 반성과 계파이익에 매몰된 상태에서 안철수가 입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호남사람들은 안철수 신당창당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싶어 한다. 은근히 민주당의 대체세력을 바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안철수 신당 창당은 호남 정치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를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경우, 도지사를 비롯 시장, 구청장 군수, 광역·기초단체 의원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안철수 지지세력이 많은 광주의 경우는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안철수를 바라보는 호남의 시선은 아직도 애뜻하기만 하다.

<소설가>

민주통합당 신임 광주시장·전남도당 위원장 인터뷰

“시당 체질 개선 생활정치 펴겠다”

임내현 광주시장위원장

최근 민주통합당 광주시장위원장으로 선출된 임내현(광주 북구 을) 의원은 23일 “시민에게 봉사하는 생활 광주시당을 만들어 광주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 대한 불신, 실망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시당의 체질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시민과 당원들이 함께하는 생활정치의 장으로 만든다면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위원회와 시당의 수평적 관계를 강화하고,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 전체 회의를 정례화해 각 자치구와 광주시의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기존 지역별 간담회를 당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확대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시당이 이처럼 시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



중요하게 전달하고,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몇몇 힘있는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며 “공천심사위원회에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덕망있는 인사 다수와 정당 내부인사 소수를 인선해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당원과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공천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광주 서중과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제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당원 홀대 더 이상 안 된다”

이윤석 전남도당위원장

최근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은 23일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민주당의 뿌리인 전남도당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임 이 위원장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 호남 당원들은 홀대받고, 호남 정치인들은 걸핏하면 개혁의 대상으로 몰렸다”며 “이제 민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내 후보경선에서 호남 당원 14명과 특정 지역 당원 1명의 표를 같은 뿔로 취급하고 검증되지 않은 모바일 투표제도를 도입해 호남 당원의 열정을 짓밟았다”며 “더 이상 정권교체를 이유로 전남 당원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시스템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대타평 인사와 정책적 배려에 대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남도당이 전진기



가 될 것이며, 그 선두에 제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후보등록 하루 이를 넘겨놓고 공천을 늦게 아군끼리 죽을 만큼 싸우게 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신속한 공천으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당위원장으로서 공약은 딱 하나”라며 “그동안 이리저리 집 싸서 옮겨다니는 청산하고, 저부터 통크게 기부해 책임기간 내 전남도당 당사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공약과 경남대 정치교과과를 졸업한 이 위원장은 ▲6·6·7대 전남도의원 ▲7대 전남도의회 의장 ▲18대·19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삼희공인중개사

모든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경매 공매 압류 미준공건물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 /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원룸매매전문

- ★전대정문 1분 룠 14개 월수익 500만원 매가16억2천
★전대상대, 농대 1분 룠 14개(상가1개)월수익 500 매가5억9천
★전대정문1분 룠 21개(주택전환가능) 월수익 750만 매가8억4천만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보5천 용 2억5)
★전대정문 1분 룠21개(주택전환가능, 엘리베이터,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월수익 750 매가8억8천(보5천 용2억5천)
★쌍촌동 신축원룸 13개 월수익 500만 매가5억9천
★쌍촌동 원룸 16개 월수익 600만 매가6억9천

쌍촌동 역세권 토지매매

운천역 1분 코너 상업지 광동간도로점 820㎡ 매가26억(병원·전시장·도시형)

수원지구 상가분양 임대전문

1층~7층 까지(695㎡) 학교·병원·독서실·모든업종가능 수원지구 1층 분양 59㎡ 매가3억6천(보3천 월140만) 수원지구 3층 분양 임대 280㎡ 매가3억3천(보3천 월180)

독서실 급매

수원지구 3천세대 모아엘 APT후문 2층 91석 최상식 시설 최고위치 보증금 5천만 월250 시비약간있음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동(국민은행 LG전지역)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취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로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29억 최저가20억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172억 최저가120억
▷ 서구 쌍촌동 2중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16억5천만 최저가13억8천만
▷ 영광동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14억3천만 최저가12억4천만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12억 최저가1억4천만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억

토지매매

- ▷ 회순읍 연암리 자연녹지매지1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1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 상가건물 ▷ 사무지구 중심상업지 95억 ▷ 첨단지구 중심상업지 19억, 30억, 70억 ▷ 진월동 중심상권 120억

대지/전답

-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괴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첨단, 수안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 선문지구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수익형 구분점포

- ▷ 첨단 메인상권 대로변 구분상가 150㎡(45평) 매매 ▷ 첨단 중심대로변 복층 가능, 1,2층 점포 400㎡, 710㎡ 임대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 첨단 메인상권 1층 구분상가 370㎡ 매매 35억 임대가능

투자 유망 물건

- ▷ 신창동 창고용지(생선복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풍암동 아파트 2층상가 124㎡(38평) 매매 2.5억 ▷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 건물 매매14.7억

후회없는 부동산투자 하늘땅공인중개사와 시작하십시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상담해드립니다.

062)973-0045 010-5536-0382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 매매 또는 교환물건 우선 접수 중!! 10억~100억 이상 급매물 대환영!! 경제,공매,급매물건 신속해결 비밀보장!!

= 상가 및 사무(매매) =

- ▶ 첨단지구 월계동 현성업종인 무인텔매매 대지 338평 건평 440평 무인텔23실 ▷ 동구 계림동 현성업종인 사무나 대지137평 건평810평(8층건물) ▷ 광산구 우산동 상가건물 대지 300평 건평 350평 ▷ 사무지구 중심상업지역 상가빌딩 대지 501평 건평 1,415평 (5층건물) ▷ 사무지구 중심상업지역 상가빌딩 대지 150평 건평 885평 (7층건물)

최고의 위치와 수익률을 보장하는 주요지의 상가건물 다량보유하고 있음

= 토지매매 =

- ▶ 광산구 광주역대 부근 대지4,000평 매매가 평당1,000만원(조정가능) ▷ 사무지구 현대아파트 뒷 부근 대지400평 매매가 평당400만원(조정가능) ▷ 사무지구 대대로변 최고 중심지역 대지650평 매매가 평당1,500~1,400만원 ▷ 사무지구 무각사부근 대지 약1,000평 매매가 평당600만(조정가능) ▷ 북구 광주역부근 대지300평 매매가 평당500만원(조정가능) (각 타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 전화접수 후 내방하시면 친절상담환영!!

956-6660 / 010-2139-6255 FAX. 956-6608

동원공인중개사 (사무지구 전문)

- 상가건물 ▷ 사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월3500만 대46억원 ▷ 사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3억, 월2500만원 대39억원 ▷ 사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대23억원 ▷ 사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5억, 월4100만원 대8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5층) 보2억2천, 월1390만 대27억원 ▷ 광산구 신창동(5층) 보2억,월1040만 대19억원

대지/전답

- 금호동 계획도로점 자연녹지 3,400㎡ 대31억원 (병원,사옥,장례예식장) • 사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대 36억원(병원,사옥) • 사무지구 중심상업지408㎡ 대 8억5천(식당,유흥노래방) • 치평동 광동간도로 395㎡ 대14억원(병원,사옥,전시장) • 마름동생선복지 도로점 895㎡ 대가11억원(식당,사옥) • 쌍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가25억

062-381-8001 010-3753-0033